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올해 최종 승자는?**

- 지식재산처·특허법원,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공동 개최 -
-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 참여... 지식재산 소송에 대한 관심과 열기 돋보여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특허법원(법원장 한규현)과 함께 8. 10.(월)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본 대회('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3개 조, 159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하였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6개 학교가 참가한 만큼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예선·본선·결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면심사로 구성된 예선을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한 24개 조는 특허법원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하였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 조를 선정하였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조(김규리, 이다은, 권나현)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조(김지호, 이시현, 김태희)가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특히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조(최유찬, 이지민, 이유정)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조(강현호, 유시현, 홍서희)가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조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 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되었다.

상표·디자인 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조(김규리, 이다은, 권나현)는 “예선부터 본·결선까지 조원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격려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변론 과정에서 특허 법원 판사님들께서 해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허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조(최유찬, 이지민, 이유정)는 “실제 소송과 같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조원들 전부가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해 고맙고, 조원들 모두가 합동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에는 결선 수상자를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주관하는 국제 변론경연대회 참가를 연계 지원할 예정으로, 국내에서 쌓은 경험이 국제무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류의 인기로 인해 해외에서 K-상표 보호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지식재산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그 무대도 국경을 넘어 넓어지고 있다”며, “지식재산 분쟁대응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 붙임 1.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현장 사진
2.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수상자 명단
3.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개요

담당부서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책임자	과 장	정경훈 (042-481-1500)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원태환 (042-481-5270)



사진 1: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2: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에서 1번째)이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특허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3: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에서 1번째)이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상표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4: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이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상명	참가자 / 소속	
	특허 부문	상표·디자인 부문
지식재산처장상	최유찬, 이지민, 이유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규리, 이다은, 권나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허법원장상	강현호, 유시현, 홍서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지호, 이시현, 김태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박현준, 이채은, 김주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연, 정근식, 장다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정재윤, 나유라, 이유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현곤, 이은서, 지윤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특허법학회장상	오승환, 김준원, 라진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려상 (참가번호 순)	윤인효, 김령원, 강유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두원, 김유광, 송민성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문, 홍희철, 김효정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원영, 김호수, 권오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김성민, 박진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 선 (참가번호 순)	김석윤, 임진서, 정주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영찬, 김준영, 조민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나, 박소영, 이재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성문, 권혜진, 강 룰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세훈, 허정훈, 최태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소담, 이경주, 이승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다봄, 최혜리, 김경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예슬, 김진서, 박지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가은, 김태경, 이수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모, 강민, 신주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대회 목적

-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지재권 소송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법적 전문성과 지재권 분쟁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 양성 도모

□ 대회 추진 일정



□ 시상 내역

구 분	특허 부문	상표·디자인 부문
지식재산처장상	1팀(500만원)	1팀(500만원)
특허법원장상	1팀(500만원)	1팀(500만원)
보호원장상	1팀(400만원)	1팀(400만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1팀(200만원)	1팀(200만원)
한국특허법학회장상	1팀(200만원)	-
장려상	5팀(팀당 100만원)	-
입 선	6팀(팀당 70만원)	4팀(팀당 70만원)